



## 自然의 秩序

會長 金 允 基

먼동이 트면서 岾畚山 기슭이 여렘꽃이 모습을 들어 낸다. 밤새 내린 비가 大地를 적시고 5月の 풀냄새가 코를 찌른다. 새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이끼끼 돌 옥어진 숲, 山川의 아름다움과 調和, 그것은 平和와 秩序의 象徴이다.

동쪽이 밝아 온다. 칠혹속에서 저넘어 水平線이 그어지고 하늘은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이글거리는 太陽은 끝 없는 하늘, 넓은 바다를 품게 물들인다. 그 많은 물도 저 불덩이를 식힐 수 없나보다!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든 것, 언제부터 비롯 되었고 또 언제까지 되풀이 이어져 갈 것인가. 달리 表現할 길 없는 自然이다. 一切의 萬物은 스스로 生成하고 存在하고 變化한다. 一切萬物은 『自生自化』한다. 이것이 自然이요 自然의 秩序다.

우리가 살고 있는 社會秩序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일까. 自然의 세계에는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調和, 平和와 秩序가 있다. 우리 社會는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調和대신 無秩序뿐이다.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不安과 恐怖에 떨 따름이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 온다. 이 自然의 秩序 속에서 우리는 여러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石窟庵의 日出을 보느라던 찬란한 햇살이 어둠을 물리치듯 不安과 恐怖를 씻어 준다. 숨을 크게 쉰다. 저 太陽과 같이 빈틈 없이 비치고 따뜻하게 감싸 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것을 주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을 배울 수 있다. 無限한 힘은 寬容과 慈悲를 베풀 수 있는 源泉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번질한 말, 설브른 理論 보다 數千年 동안의 經驗을 살려서 모든 일을 슬기롭게 克服해 나가야겠다. 말이 아니라 實踐을 통해서 信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서로의 엇갈리기 쉬운 생각을 調和시켜 나가자. 平和와 秩序를 찾고 지켜 나가자. 自然을 尊重하고 自然과 親睦함으로써 이 길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